

# 충청 남동지역의 조기~전기 편년

공민규  
한국고고환경연구소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2. 가락동유형의 상한과 하한                |
| II. 관련자료의 검토 | III.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br>-맺음말을 대신하여 |
| 1. 미사리유형     |                                 |

## I. 머리말

금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전기문화는 제일성을 띠는 가락동유형을 중심으로 일부 주변문화의 요소가 가미되는 양상으로 이해되어왔다. 그 중 미사리유형의 요소로 인식되는 절상돌대문은 간헐적으로 가락동유형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금강유역내에서의 전개과정보다는 외래적 요소의 파급이 주된 요인으로 설정되었다. 가락동유형은 최근 많은 자료가 추가되어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나 유형의 근간을 이루었던 이해의 틀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금강유역의 충적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서 거의 전무했던 미사리유형의 관련자료들이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하여 증평 송산리유적과 대전 원신흥동유적(동서도로사업구간)에서 보고된 자료는 이제 이 지역에서도 동유형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평리유적의 세지점에서 확인된 자료는 미사리유형에 대한 취락 단위의 연구를 포함하여 여타의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 자료와 충분히 비교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단위에서의 접근이 구릉에 위치한 가락동유형 중심임을 감안한다면 금강유역내에서의 청동기시대 조기에 대한 접근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편년을 토대로 금강유역 특히 금강 중류역의 충청 남동지역에서 제시된 일단의 청동기시대 조기~전기자료를 수합하여 조금 더 다듬은 편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조기는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조기 또는 전기의 틀보다는 금강유역 청동기시대의 빠른 단계로서 1~3단계 또는 1~5단계로의 구분을 통해 이 지역 청동기문화 출현·성립기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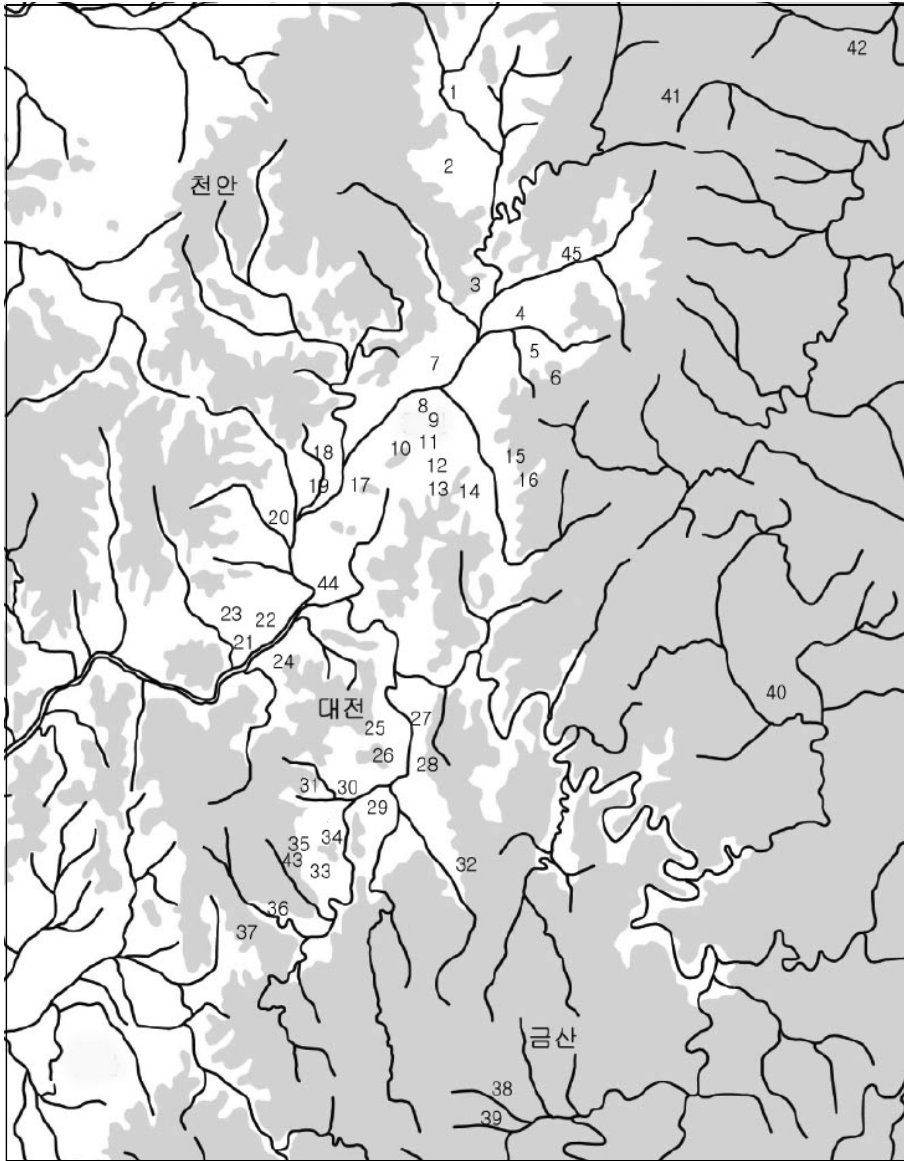


그림 1. 금강유역(충청 남동지역) 청동기시대 조~전기 유적의 분포

1.신월리 2.시양리 3.학소리 4.대울리 5.마산리 6.풍정리 7.송대리 8.내곡동 9.향정·외북동 10.비하동 I 11.비하동 II 12.강서동 13.산남동 14.분평동 15.용암동 16.운동동 17.황탄리 18.쌍청리 19.궁평리 20.신흥동 21.송원리 22.송담리 23.제천리·당암리 24.대평리 25.관평동 26.용산동 27.상서동 28.신대동 29.둔산동 30.궁동 31.노동 32.가오동 33.관저동 34.원신흥동 35.상대동 36.방동 37.두계리 38.수당리(역) 39.수당리 40.상장리 41.하당리 42.장성리 43.용계동 44.용호리 45.송산리

## II. 관련자료의 검토

### 1. 미사리유형

금강유역에서 청동기시대 조기~전기의 미사리유형과 관련된 고고자료는 제한적이었다. 즉, 기존의 여러 연구성과를 통해 알려진 (석상)위석식노지와 돌대문토기의 조합을 이루는 자료가 금강유역에서 뚜렷하지 않은 관계로 이 지역에서 조기-미사리유형의 설정보다는 가락동유형에 포함된 미사리유형의 요소를 통해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강유역의 충적지에서 대·소규모의 취락(주거)유적이 조사되고 이에 대한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일정부분 진전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글에서는 충적지상에 입지한 연기 대평리유적의 A·B·C지점과 증평 송산리유적, 대전 원신흥동(동서도로부지)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그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변지역의 미사리유형 자료와의 비교·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아직까지 필자의 능력밖이므로 금강유역내에서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춰 검토를 진행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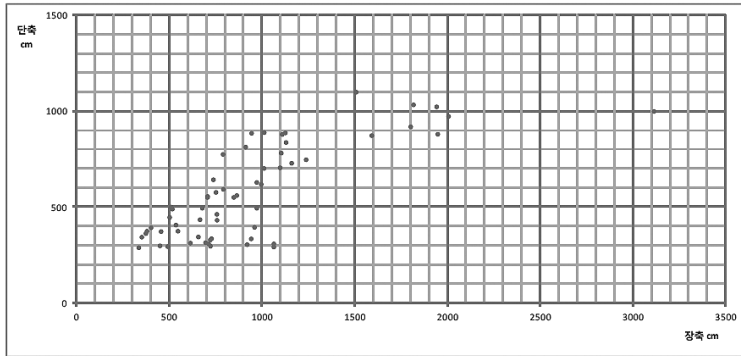
금강유역 충적지상에서 조사된 미사리유형 관계 주거지는 현재까지 5개소에서 총 64기<sup>1)</sup>이며, 10기 미만의 수혈유구도 포함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정방형(1.15:1이하)·방형(1.5:1이하)·장방형(2.5:1미만)·세장방형(2.5:1이상)으로 구분되며 각각 13(23.6%), 19(34.6%), 18(32.7%), 5(9.1%)의 점유율을 갖는다.(그림 2-①) 주거지의 규모(그림2-②)는 소형 19기

(32.2%), 중소형 17기(28.8%), 중형 5기(8.5%), 중대형 9기(15.2%), 대형 5기(8.5%), 초대형 4기(6.8%)로 나타난다. 특히 대평리 A-6호 주거지는 한쪽의 단벽이 유실되었음에도 장축이 31.12m이고 면적 역시 311.2㎡에 이르는 초대형 건물로서 주거 목적 이외의(예를 들면 공공건물, 공동작업장) 성격을 추정케 한다. 주거지 내부의 시설과 관련하여 노지는 총 45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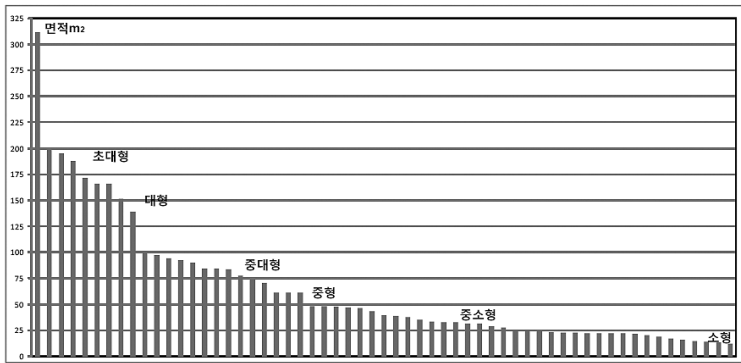
표 1. 주거지 규모와 노지 형태·개수의 관계

| 구분 \ 주거규모 | 소형 | 중소형 | 중형 | 중대형 | 대형 | 초대형 |
|-----------|----|-----|----|-----|----|-----|
| 석상위석      | 1  | 3   | 3  | 2   | 1  |     |
| 토광위석      | 3  | 4   |    | 3   | 1  |     |
| 무시설       | 9  | 5   | 1  | 2   |    | 2   |
| 석상+위석     |    |     |    |     |    | 1   |
| 석상+무시설    |    |     |    | 1   | 1  | 1   |
| 위석+무시설    |    |     | 1  |     | 1  | 1   |
| 노지 1      | 7  | 11  | 6  | 3   | 1  |     |
| 노지 2      | 3  |     |    | 3   | 1  | 3   |
| 노지 3      |    | 1   | 1  |     | 2  | 1   |
| 노지 4      | 1  |     |    | 1   |    |     |

1) 미호천의 충적지에 위치한 청원 궁평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2011년)에서도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가 1기 확인되었으나 보고서미간으로 이 글에서 제외하였다.



①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장단비



② 주거지의 규모

**그림 2. 미사리유형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규모**

확인되고 동 유적 2-2호에서는 1열×5개의 초석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대평리 B3호와 B17호 주거지는 주거지 내부 모서리에 4주석의 기둥배치가 나타나는데, 두 주거지는 정방형의 소형주거지로 동일하다.

미사리유형 주거지 출토품 중 토기는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 등의 단독문과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 등 복합문이 시문된 토기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3) 그런데 단독문에서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유적별 보고서의 여러 표현이 상이한 관계로 이 글에서는 구연단 외측에 바로 점토대를 덧붙여 단차 없이 제작한 것을 이중구연으로 분류하고 돌대문은 구연단 외측에서 아래쪽으로 이격되어 점토대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표 2를 보면 단독문의 각목돌대문과 이중구연이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존속되는 문양속성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3의 문양 1·4·5번이 해당될 것이다. 단기속성은 문양 7·10·13이며, 문양 13은 뒤에서 살펴볼 가락동유형의 이중구연A+단사선문b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즉 가락동계 이중구연으로서 구릉과 층적지 취락간의 연결고리일 가능성도 있다.

확인되며, 석상위석식 10, 위석식 11, 무시설식(또는 토광식) 19기이다. 또한 단위주거지에 다른 종류의 노지가 복합된 예는 7기가 확인되며 모두 중형 이상의 규모를 갖는다. 또한 내부의 기둥배치는 불규칙성을 나타내는 것이 대부분이나 대평리 C4호와 C19호에서 각각 2열×5행, 2열×4행의 초석열이 확인되며, 원신흥동 2-1호에서는 주공과 초석이 결합된 2열×9행의 배치가





|   |  |   |  |
|---|--|---|--|
| 1.각목돌대문<br>      | 2.절상돌대문<br>     | 3.무각목돌대문<br>     | 4.이중구연a<br>      |
| 5.이중구연b<br>      | 6.이중구연c<br>     | 7.구순각목a<br>      | 8.구순각목b<br>      |
| 9.이중구연+거치문<br>   | 10.이중구연+X문계<br> | 11.이중구연+단사선①<br> | 12.이중구연+단사선②<br> |
| 13.이중구연+단사선③<br> | 14.이중구연+각목b<br> |   |  |

그림 3. 금강유역 미사리유형 주거지 출토토기의 문양분류

미사리유형의 주거지 출토토기에서 확인되는 문양은 14개이며 이 중 각목 돌대문과 이중구연a·b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주거지의 형식이나 노지형태와 관련시켜보면 기존에 이해되던 양상을 금강유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즉 석상위석식노지나 정방형 주거지의 선행여부가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시설석노지나 위석식노지와 병존하는 듯이 나타나고 정방형 뿐만 아니라 방형·장방형의 평면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대평리유적 세지점의 주거지 중복관계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주거지의 중복 자체가 하나의 단계를 구분할 만큼 확기가 되기

표 4. 각 문양이 출토된 주거지 수

| 문양구분 | 각목돌대문 | 절상돌대문 | 무각목돌대 | 이중구연 a | 이중구연 b | 이중구연 c | 구순각목 a | 구순각목 b | 이중+거치문 | 이중+X문계 | 이중+단사① | 이중+단사② | 이중+단사③ | 이중+각목 b |
|------|-------|-------|-------|--------|--------|--------|--------|--------|--------|--------|--------|--------|--------|---------|
| 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수량   | 14    | 5     | 3     | 15     | 12     | 8      | 3      | 2      | 6      | 2      | 8      | 7      | 2      | 5       |

표 5. 각 문양간의 단위주거지내 공반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1   |    | o | o  | o | o | o  |   | o |   | o  | o  | o  |    | o  |
| 2   | o  |   | o  | o | o | o  | o |   |   |    |    |    |    | o  |
| 3   | o  | o |    | o | o | o  |   | o | o | o  | o  | o  |    | o  |
| 4   | o  | o | o  |   | o | o  |   |   |   |    |    |    |    | o  |
| 5   | o  | o | o  | o |   | o  |   |   | o | o  |    |    |    | o  |
| 6   | o  | o | o  | o | o |    |   | o | o |    | o  | o  |    | o  |
| 7   |    | o |    |   |   |    |   |   |   |    |    |    |    | o  |
| 8   | o  |   |    |   |   | o  |   |   |   |    | o  | o  |    | o  |
| 9   |    |   | o  | o | o | o  |   |   |   | o  |    |    |    | o  |
| 10  | o  |   | o  |   | o |    |   |   | o |    |    |    |    | o  |
| 11  | o  | o | o  |   | o |    |   | o |   |    |    | o  | o  | o  |
| 12  | o  | o | o  | o |   | o  |   | o |   |    | o  |    | o  | o  |
| 13  |    |   |    |   | o |    |   |   | o |    | o  | o  |    |    |
| 14  | o  | o | o  | o | o | o  | o | o |   |    | o  | o  |    |    |
| 공반수 | 10 | 7 | 11 | 8 | 9 | 10 | 2 | 6 | 6 | 4  | 7  | 8  | 4  | 10 |

어려운 면도 있으나 적어도 노지의 형태나 주거지의 평면, 그리고 유물상의 혼재는 금강유역 미사리유형의 단계를 설정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그림 4와 같이 대평리 유적의 세지점에서 7곳에서 주거지의 중복관계가 확인된다.

우선 A지점의 1~4호의 중복관계를 살펴보면 A1호는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중소형 방형주거지에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①·②가 출토된다. A2호는 소형의 장방형주거지로서 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토유물은 없다. A3호는 대형의 장방형주거지로서 석상위석식노지와 무시설식노지가 각 1기씩 설치되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①·②·③이 출토된다. A4호는 중소형의 장방형주거지에 무시설식노지 1기가 설치되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②와 이중구연+구순각목b가 출토되었다. 여기서 A1호와 A2호의 선후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두 주거지가 A3호에 선행하며, A4호가 마지막에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일반적인 미사리유형의 전개과정과 부합되는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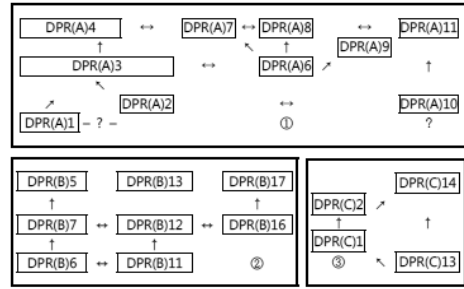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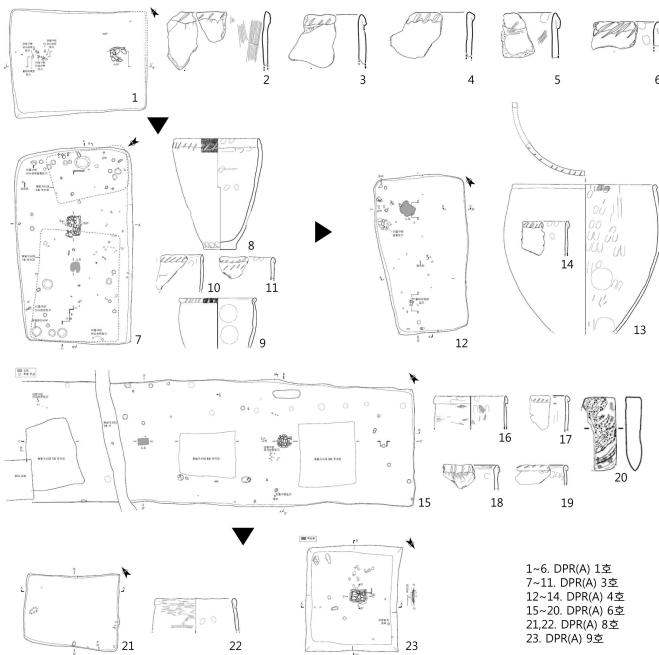


그림 4. 대평리유적 주거지 중복관계 모식도  
(①A지점 ②B지점 ③C지점)

그런데 A6~A9호를 살펴보면 초대형의 세장방형 주거지인 A6호에서는 석상위석식노지와 무시설식노지가 1기씩 설치되고 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b, 이중구연단사선문②, 이중구연+각목b 등의 토기가 출토된다. 그리고 이 A6호에 후행하는 A7~A9호는 서로간의 중복이 없어 시차를 확인키 어렵지만, 정방형의 소형주거지에 석상위석식노



1~6. DPR(A) 1호  
7~11. DPR(A) 3호  
12~14. DPR(A) 4호  
15~20. DPR(A) 6호  
21,22. DPR(A) 8호  
23. DPR(A) 9호

그림 5. 대평리 A지점 주거지 중복관계에 의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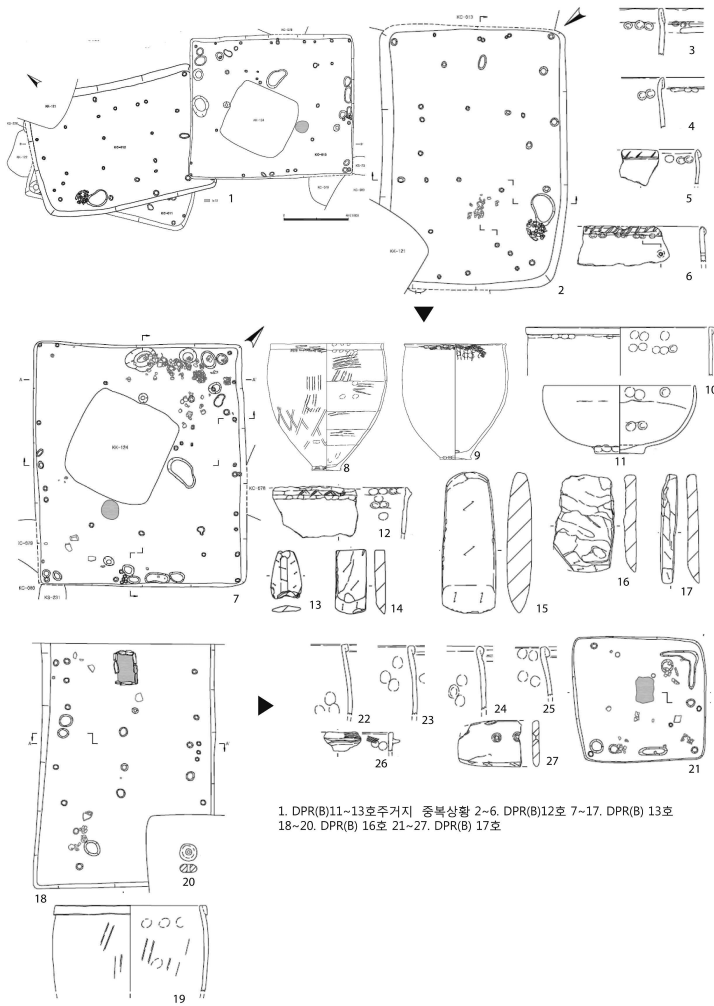


그림 6. 대평리 B지점 주거지 중복관계에 의한 양상

다. B7호는 중소형의 장방형주거지로서 위석식노지 1기가 설치되며, 토기는 뚜렷한 특징이 없다. B11~13호의 중복에서 선행하는 11호는 출토유물이 없으며, 12호는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방형의 중대형주거지로서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c, 이중구연단사선문①, 13호는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된 정방형의 중대형주거지에, 거치상의 각목이 시문된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a,b가 출토된다. B16·17호에서 선행하는 16호는 토기상이 불분명하나 잔존 형태상 중형의 장방형 이상이고 위석식노지가 설치된다. 17호는 소형의 정방형주거지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며 이중구연a,b가 출토된다. 대평리유적 B지점의 경우 취락내에서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거지내의 노지설치에서 위

지가 설치된 A9호의 양상을 볼 때 평면 형태나 주거지 규모 차이 또는 노지의 형태나 설치의 차이가 온전한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물론 이 A9호는 출토유물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판단은 보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B5~7호의 중복을 살펴보자. 이 주거지들의 순서는 5-7-6의 순서로 6호가 후행한다. B5호는 초대형의 장방형 주거지로서 위석식노지 2기와 무시설식노지 1기가 설치되며, 이중구연a가 출토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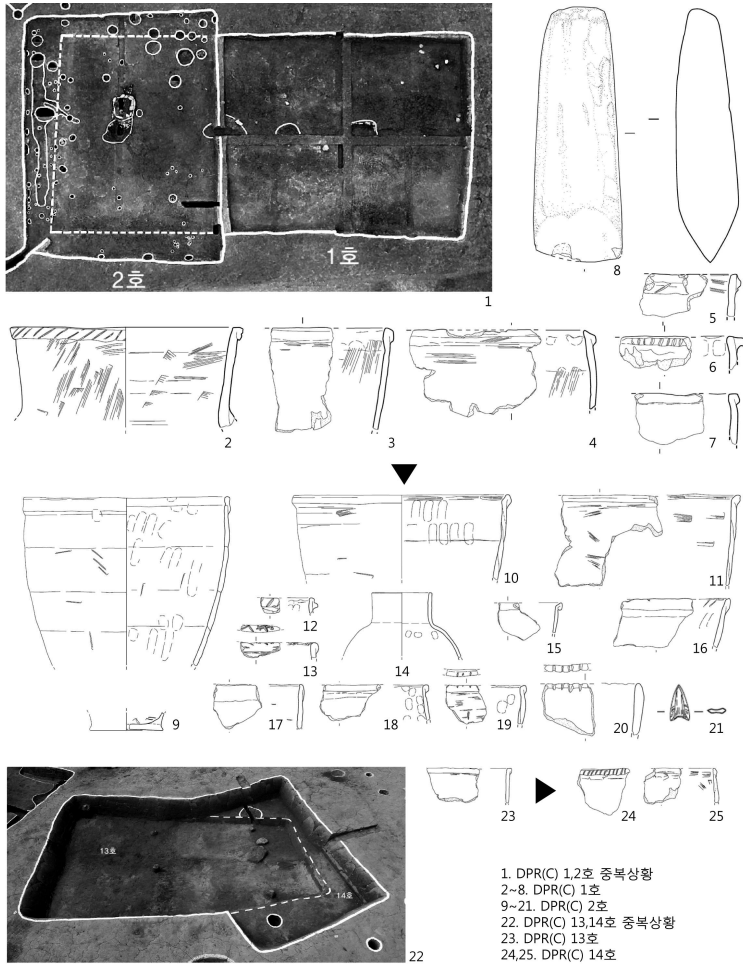


그림 7. 대평리 C지점 주거지 중복관계에 따른 양상

하는 C1호는 위석식노지1기+무시설식노지3기의 조합인 반면, C2호는 위석식노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토기상에서는 1호에서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무각목돌대문, 이중구연a, 이중구연단사선문①이 출토되고 2호에서 각목돌대문, 이중구연a·b·c, 이중구연+각목b가 출토된다. C13·14호는 양자 모두 방형계의 중소형주거지로서 무시설식노지 1기가 설치된 양상은 거의 유사하다. 토기상은 선행하는 13호에서 이중구연a가, 14호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c가 출토된다. C지점의 중복관계를 통해 볼 때 주거지의 규모 또는 형태상에서 거의 동일하고 토기상 역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계를 구분할 만큼의 시간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중복된 양 주거지가 유물상에서 보이는 것 보다 큰 시차를 갖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각목돌대문토기가 후행하는 양상도

석식→무시설식의 변화는 확인되나 평면형의 변화는 간취되지 않으며 규모에서는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토기에 있어서는 중복된 주거지에서의 유물상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주거지의 중복이 시차를 크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C지점에서는 2곳의 중복이 확인되는데, C1·2호는 규모와 평면형대는 거의 동일하지만, 노지의 경우 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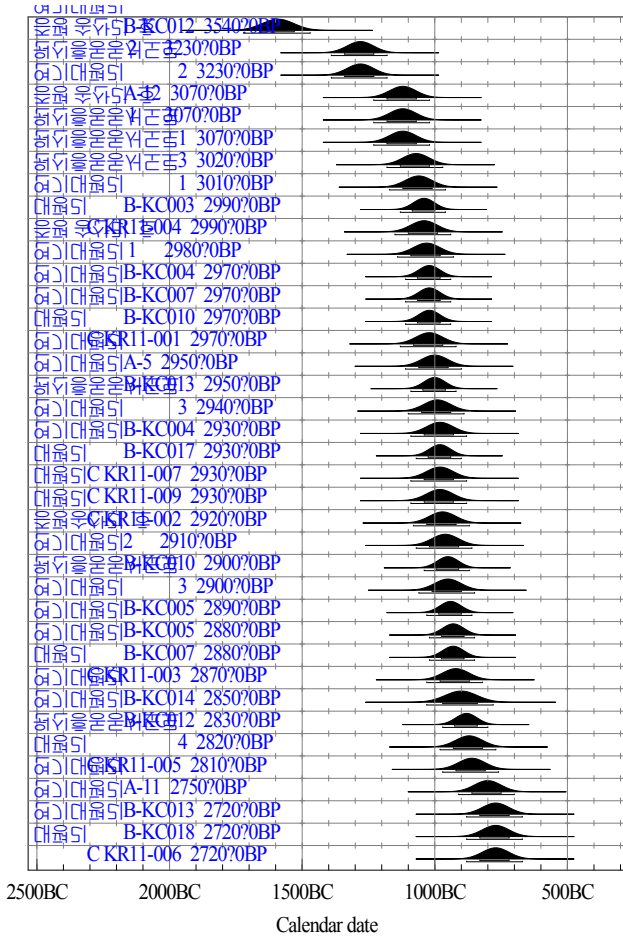


그림 8. 금강유역 미사리유형의 절대연대

대문토기 출토) 3,020±50B.P.나 1호 주거지(이중구연b 출토)의 3,070±50B.P.와 3,010±50B.P.에 비해 빠른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송산리의 경우에도 비교적 빠른 주거지로 판단되었던(현대환 2012) 정방형주거지에 석상위석식노지가 설치된 1호의 연대가 3,070±50B.P.와 2,980±50B.P.로서 앞서의 2호보다 늦을 수도 있다. 물론 절대연대값 자체를 이용한 편년은 무리가 따르고 복수의 연대가 측정될 경우 늦은 연대값을 취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임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거지의 중복이나 절대연대값이 시사하는 점은 미사리유형의 단계설정에 있어 기왕에 제기되었던 여러 기준들이 금강유역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여기에서는 속성배열법(안재호 2007, 유선영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미사리유형의 단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끝으로 금강유역의 미사리유형 주거지에서 나타난 절대연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8을 통해 볼 때 3,000B.P.이상의 연대를 갖는 8기의 주거지가 있다. 중복관계를 보이는 대평리B12호가 3,540B.P.이고, 이중구연거치문토기가 출토된 송산리 2호는 3,230±50B.P.와 2,910±50이다. 그리고 가락동유형의 전형인 용암2a식 주거지인 원신흥동 동서도로의 2호는 3,230±70B.P.로서 일반적으로 미사리유형에서 비교적 빠르다고 인지되는 동유역의 3호 주거지(절상돌

2012)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빌려 접근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일부 제시한 바와 같이 금강유역 미사리유형의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의 문양을 정리하면 총 14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문양들은 다시 각목돌대문과 이중구연의 단독문과 이중구연단사선문 등의 복합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속성배열법을 통한 기와의 연구에서 울산지역이나 금호강유역은 확인되는 문양의 수가 금강유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필자가 문양에 대한 분류를 단순하게 한 문제도 있겠지만, 금강유역의 총적지 자료로 한정하여 구릉의 가락동유형 자료가 배제되고 특히 혼암리계 이중구연단사선문이나 공렬문, 돌류문, 그리고 두림문 등을 포함한 퇴화된 단사선문 등의 자료는 동지역에서 극히 드물거나 부존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은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어 결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므로 추후 가락동유형 자료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총 14개의 문양을 통해 단위주거지의 단순 출토상이나 각 문양간의 공반양상에서 각목돌대문과 이중구연은 금강유역 미사리유형의 전기간 동안 지속된 문양으로서 하나의 단계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것은 앞에서의 주거지 중복관계에서 제시한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단기간에 유행하거나 비교적 존속기간이 짧은 문양으로는 구순각목a(7), 이중구연+X문(10), 이중구연단사선문③(13)이며, 중장기문양과의 결합관계는 표 6과 같다. 또한 중기속성으로 구분되는 7개의 문양과 장기의 5개 문양은 거의 모두 결합되므로 대부분 시가상 겹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문의 이중구연a·b·c는 출토되는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공반상을 보이므로 큰 시차를 두기 어려우며, 하나로 묶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복합문의 이중구연단사선문①·②인 문양 11과 12의 경우 미사리계 이중구연단사선문으로서 구릉지 자료와의 차이가 있고 각목돌대문과의 구분이 모호하지만 단독문인 이중구연과의 공반관계 즉, 이중구연만 출토되는가 아니면 양자가 공반하는가에 따라 시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차는 결손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단독문에서 복합문으로의 변천을 염두해 둘 수 있다. 문양 9의 이중구연거치문토기는 각목

표 6. 단기와 중·장기속성문양과의 관계

|      |         |    |    |   |
|------|---------|----|----|---|
|      | 단기문양    | 10 | 13 | 7 |
| 중기문양 | 4,5     | ○  | ○  |   |
|      | 9,11,12 | ○  | ○  |   |
|      | 2,8     |    |    | ○ |
| 장기문양 | 1,3     | ○  |    |   |
|      | 6       |    |    |   |
|      | 14      |    |    | ○ |

표 7. 중기속성과 장기속성

|    |   |   |    |    |   |   |   |
|----|---|---|----|----|---|---|---|
|    | 4 | 5 | 11 | 12 | 2 | 8 | 9 |
| 1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표 8. 문양배열

|    |    |    |   |
|----|----|----|---|
|    | 10 | 13 | 7 |
| 1  | ○  |    |   |
| 3  | ○  |    |   |
| 5  | ○  | ○  |   |
| 9  | ○  | ○  |   |
| 11 |    | ○  | X |
| 12 |    | ○  | X |
| 2  |    |    | ○ |
| 14 |    |    | ○ |

돌대문토기와 공반예가 없고 이중구연+구순각목b와도 공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각목돌대문토기와 공반이나 주로 이중구연토기와 공반되는 점, 구릉지의 자료나 가락동유형에서 거치문은 비교적 빠른 단계에 출현하는 문양인 점에서, 금강유역 미사리유형의 빠른 단계로 판단해도 좋을 것 같다. 문양 13의 이중구연단사선문③은 가락동계이중구연과 거의 동형으로 판단되는데 출토예가 2기의 주거지에 불과하여 불분명하지만 거치문과의 공반상, 특히 이중구연b와 이중구연거치문과의 공반상이 보이므로 늦은 단계로 두기 어렵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문양 2의 절상돌대문토기이다. 절상돌대문은 가락동유형의 이른 단계에서도 나타나고 한반도 북부지역에서는 각목돌대문과 시차를 두기 어려운 예도 있다. 그런데 금강유역의 미사리유형에서 절상돌대문토기는 빠른 단계의 양상과도 결합하지만 늦은 단계로 판단되는 구순각목a나 돌대문의 최후 양상으로 지적된 (이중구연+구순각목b와 공반예를 통해 잠정적으로 늦은 단계로 정리해 둔다. 그러나 주거지 출토 자료에서 소편으로 인해 각목돌대문과 절상돌대문의 구분이 모호한 점과 절상돌대문 자체의 연대도 소급 가능하므로 이는 차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통해 문양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9이며, 각 단계설정의 시안을 제시한 것이 표 10이다.

표 10의 각 주거지에 대한 단계 설정은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각 단계에 속한 개별 주거지의 순서는 단계속의 선후관계가 아니며 토기문양 역시도 발생순서나 출현순서는 아니다. 즉 각목돌대문토기가 이중구연b 또는 이중구연a에 후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내에서 시차없이 공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그러나 이중구연거치문토기라든지 이중구연단사선문③은 출현순서에 있어 이중구연단사선문①·②에 선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순각목a나 이중구연구순각목b가 금강유역 미사리유형에서 늦은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금강유역 미사리유형 1단계는 전반적으로 단독문의 이중구연이나 각목돌대문을 중심으로 이중구연거치문 등의 복합문이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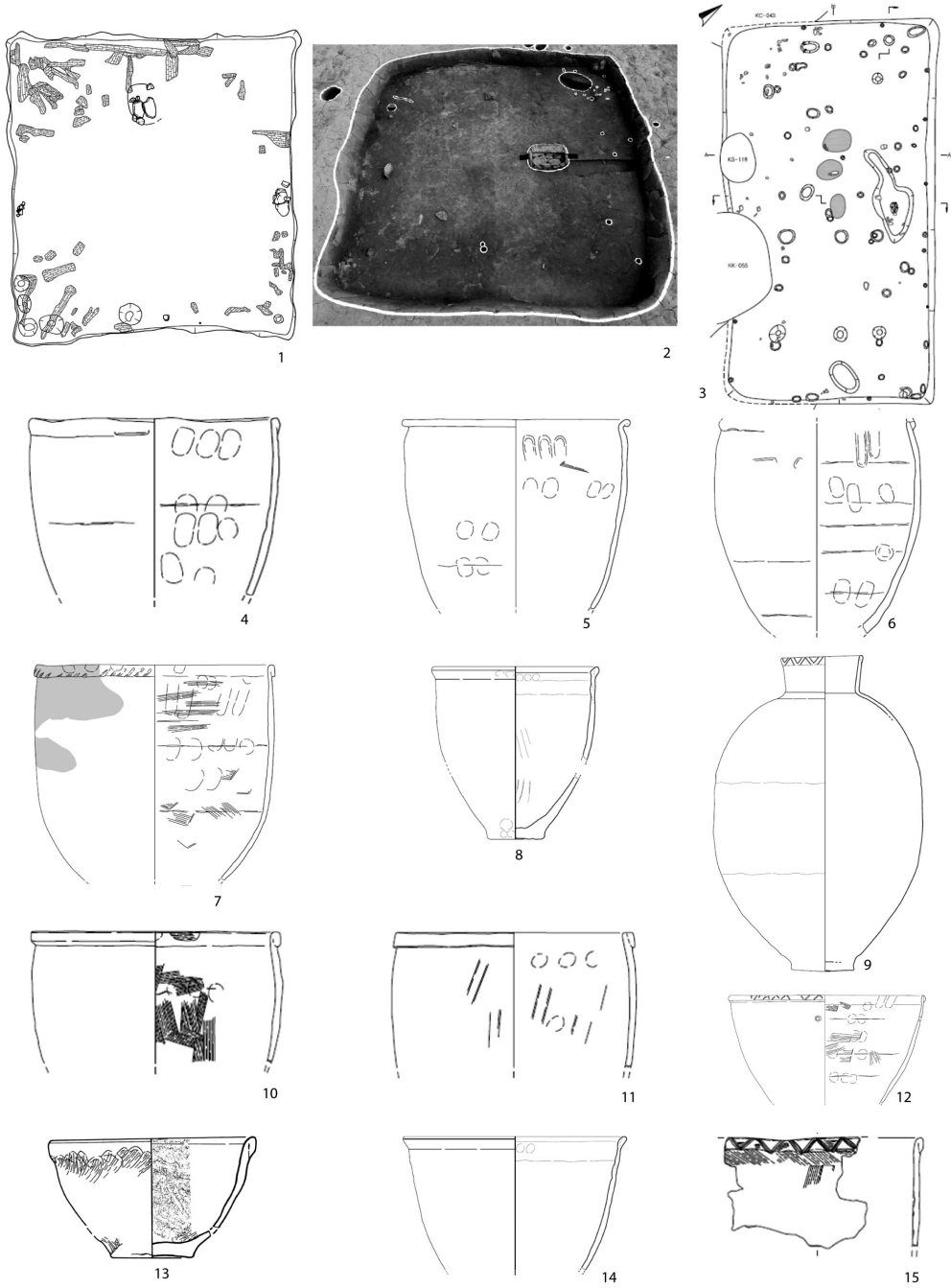
표 9. 문양의 유행과 존속기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1 각목돌대문      |     |     |     |
| 3 무각목돌대문     |     |     |     |
| 10이중구연+X문    |     |     |     |
| 5 이중구연b      |     |     |     |
| 9 거치문        |     |     |     |
| 13이중구연+단사선문③ |     |     |     |
| 11이중구연+단사선문① |     |     |     |
| 12이중구연+단사선문② |     |     |     |
| 7 구순각목       |     |     | ?   |
| 2 절상돌대문      |     |     |     |
| 14이중구연+구순각목b |     |     |     |

나고 2단계는 1단계의 단독문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합문계의 미사리계 이중구연단사 선문이 주를 이룬다. 3단계는 1,2단계 중 각목돌대문, 이중구연 등도 지속되지만 구순각 목아 등 낮은 요소가 출현하고 절상돌대문이 중심을 이루는 단계로 파악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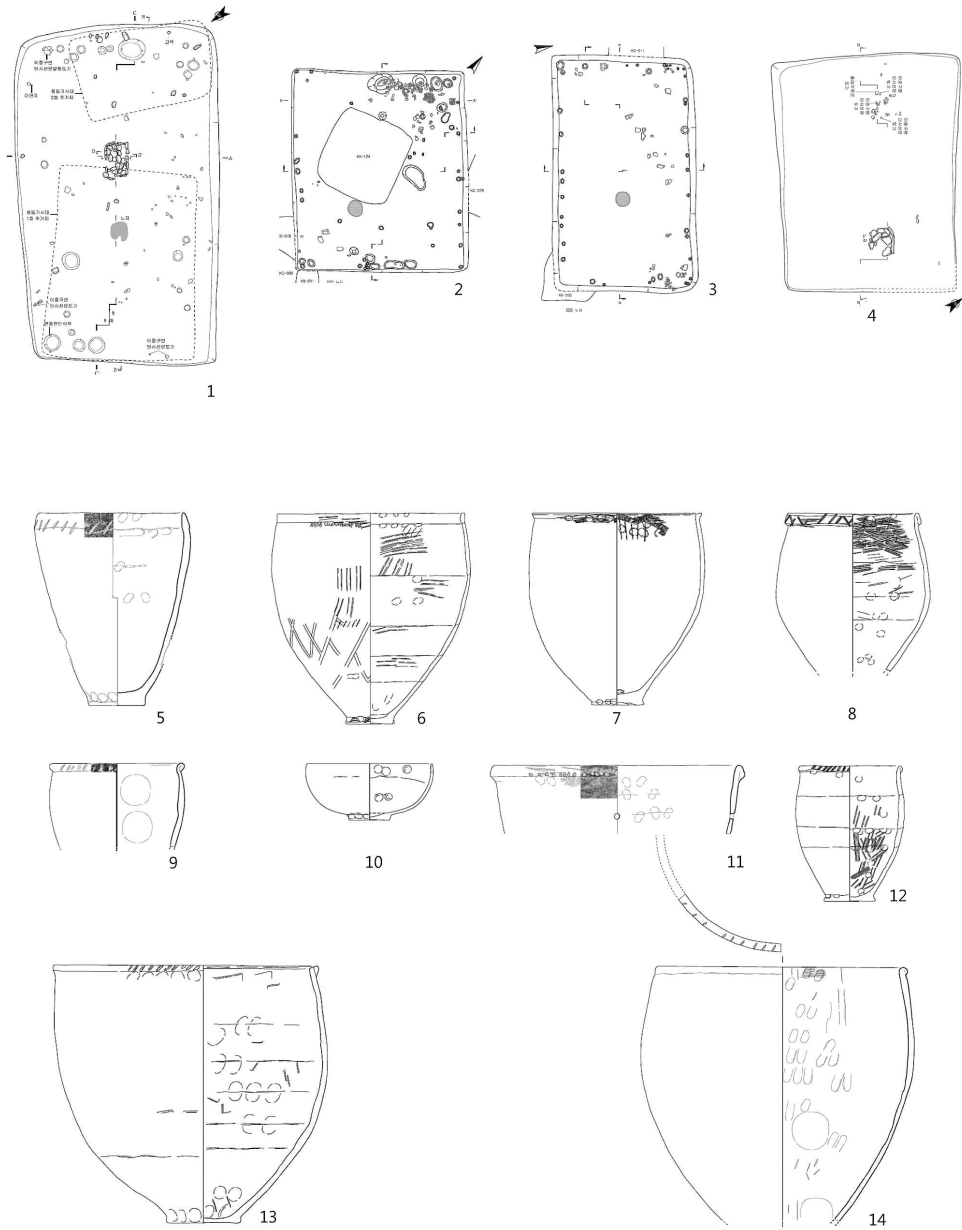
표 10. 금강유역 미사리유형 주거지 자료의 단계설정(안)

| 구분<br>주거지 | 장단비    | 면적      | 노지 |    |     | 각목돌대문 | 절상돌대문 | 무각목돌대 | 이중구연 a | 이중구연 b | 이중구연 c | 구순각목 a | 구순각목 b | 이중구연 + 거치문 | 이중구연 + X문계 | 이중구연 + 단사선문 ① | 이중구연 + 단사선문 ② | 이중구연 + 단사선문 ③ | 이중구연 + 각목 b |
|-----------|--------|---------|----|----|-----|-------|-------|-------|--------|--------|--------|--------|--------|------------|------------|---------------|---------------|---------------|-------------|
|           |        |         | 석상 | 위석 | 무시설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SSR1      | 1.05:1 | 25.3    | 1  |    |     |       |       |       |        | ●      |        |        |        |            |            |               |               |               |             |
| DPR(B)10  |        | 잔151.62 |    |    | 2   |       |       |       |        | ●      |        |        |        |            |            |               |               |               |             |
| DPR(C)16  | 1.01:1 | 61.1    | 1  |    |     |       |       |       |        | ●      |        |        |        |            |            |               |               |               |             |
| DPR(C)13  | 1.53:1 | 48.4    |    |    | 1   |       |       |       | ●      |        |        |        |        |            |            |               |               |               |             |
| DPR(B)16  |        |         |    | 1  |     |       |       |       | ●      |        |        |        |        |            |            |               |               |               |             |
| DPR(B)17  | 1.01:1 | 15.76   |    |    | 1   |       |       |       | ●      | ●      |        |        |        |            |            |               |               |               |             |
| DPR(B)5   | 1.89:1 | 198.65  |    | 2  | 1   |       |       |       | ●      |        |        |        |        |            |            |               |               |               |             |
| DPR(B)14  | 1.1:1  | 12.07   |    |    | 1   |       |       |       | ●      |        |        |        |        |            |            |               |               |               |             |
| DPR(B)18  |        |         |    | 1  |     |       |       |       | ●      |        |        |        |        |            |            |               |               |               |             |
| DPR(B)19  |        |         |    |    |     |       |       |       | ●      |        |        |        |        |            |            |               |               |               |             |
| DPR(A)8   | 1.21:1 | 16.97   |    |    |     |       |       |       |        |        | ●      |        |        |            |            |               |               |               |             |
| DPR(C)14  | 1.49:1 | 28.9    |    |    | 1   | ●     |       |       |        |        | ●      |        |        |            |            |               |               |               |             |
| WSHD2-수2  |        |         |    |    |     | ●     |       |       |        |        |        |        |        |            |            |               |               |               |             |
| DPR(C)수혈1 |        |         |    |    |     | ●     |       |       |        |        |        |        |        |            |            |               |               |               |             |
| DPR(C)수혈2 |        |         |    |    |     |       |       | ●     |        |        |        |        |        |            |            |               |               |               |             |
| WSHD2-1   |        |         | 2  |    |     |       |       |       |        | ●      |        |        |        |            | ●          |               |               |               |             |
| SSR2      | 1.3:1  | 39.3    |    |    | 1   |       |       |       |        |        |        |        |        |            | ●          |               |               |               |             |
| DPR(B)4   | 1.89:1 | 138.96  |    | 1  | 2   |       |       |       | ●      | ●      | ●      |        |        |            | ●          |               |               |               |             |
| DPR(C)4   | 1.75:1 | 187.3   | 1  | 1  |     |       |       |       |        |        |        |        |        |            | ●          |               |               |               |             |
| DPR(C)22  | 1.36:1 | 165.6   |    | 1  |     |       |       |       | ●      |        | ●      |        |        |            |            |               |               |               |             |
| DPR(C)10  | 1.02:1 | 22.6    |    |    | 1   |       |       |       |        | ●      |        |        |        |            | ●          |               |               |               | ●           |
| DPR(A)3   | 1.65:1 | 92.5    | 1  |    | 1   |       |       |       |        |        |        |        |        |            |            | ●             | ●             | ●             |             |
| DPR(B)12  | 1.4:1  | 84.15   |    |    |     | ●     |       |       |        |        | ●      |        |        |            |            | ●             |               |               |             |
| DPR(B)13  | 1.13:1 | 89.89   |    |    | 1   | ●     |       |       | ●      | ●      |        |        |        |            |            |               |               |               |             |
| DPR(A)1   | 1.27:1 | 38.9    | 1  |    |     | ●     |       |       |        |        |        |        |        |            |            | ●             | ●             |               |             |
| DPR(A)12  | 1.15:1 | 9.7     |    |    |     |       |       |       | ●      |        |        |        |        |            |            |               | ●             |               |             |
| DPR(B)2   | 1.59:1 | 84.53   |    |    | 1   | ●     |       |       | ●      |        |        |        | ●      |            | ●          | ●             |               |               |             |
| DPR(C)24  | 2.05:1 | 195.1   |    |    | 2   | ●     |       |       |        |        |        |        |        |            |            | ●             |               |               |             |
| DPR(B)수혈1 |        |         |    |    |     |       |       |       |        |        |        |        |        |            |            |               | ●             |               |             |
| DPR(A)4   | 1.75:1 | 32.7    |    |    | 1   |       |       |       |        |        |        |        |        |            |            | ●             | ●             |               | ●           |
| DPR(C)21  | 1.29:1 | 43.3    |    |    |     |       |       |       |        |        |        |        |        |            |            | ●             |               |               |             |
| DPR(C)6   | 1.53:1 | 46.6    | 1  |    |     | ●     | ●     |       | ●      |        |        |        |        |            |            |               |               |               |             |
| DPR(C)3   | 1.34:1 | 94.5    |    | 2  |     | ●     | ●     |       |        | ●      | ●      |        |        |            |            |               |               |               |             |
| DPR(C)1   | 1.26:1 | 99.8    |    | 1  | 3   | ●     | ●     | ●     | ●      |        |        |        |        |            |            | ●             |               |               |             |
| DPR(C)2   | 1.26:1 | 97.4    |    | 1  |     | ●     |       |       | ●      | ●      | ●      |        |        |            |            |               |               |               | ●           |
| DPR(B)8   | 1.01:1 | 25.5    |    |    | 1   |       | ●     |       |        | ●      |        |        |        |            | ●          | ●             |               |               |             |
| WSHD2-3   | 1.54:1 | 61.11   | 1  |    |     |       | ●     |       |        |        |        | ●      |        |            |            |               |               |               | ●           |
| DPR(A)5   | 1.96:1 | 165.6   | 1  |    | 2   | ●     |       | ●     |        | ●      |        | ●      |        |            |            | ●             | ●             |               | ●           |
| DPR(A)6   | 3.1:1  | 311.2   | 1  |    | 1   | ●     |       |       |        | ●      |        |        |        |            |            |               | ●             |               | ●           |
| DPR(C)8   | 2.19:1 | 21.9    |    |    | 2   |       |       |       |        |        |        | ●      |        |            |            |               |               |               |             |
| WSHD2-2   | 3.6:1  | 31.22   |    | 3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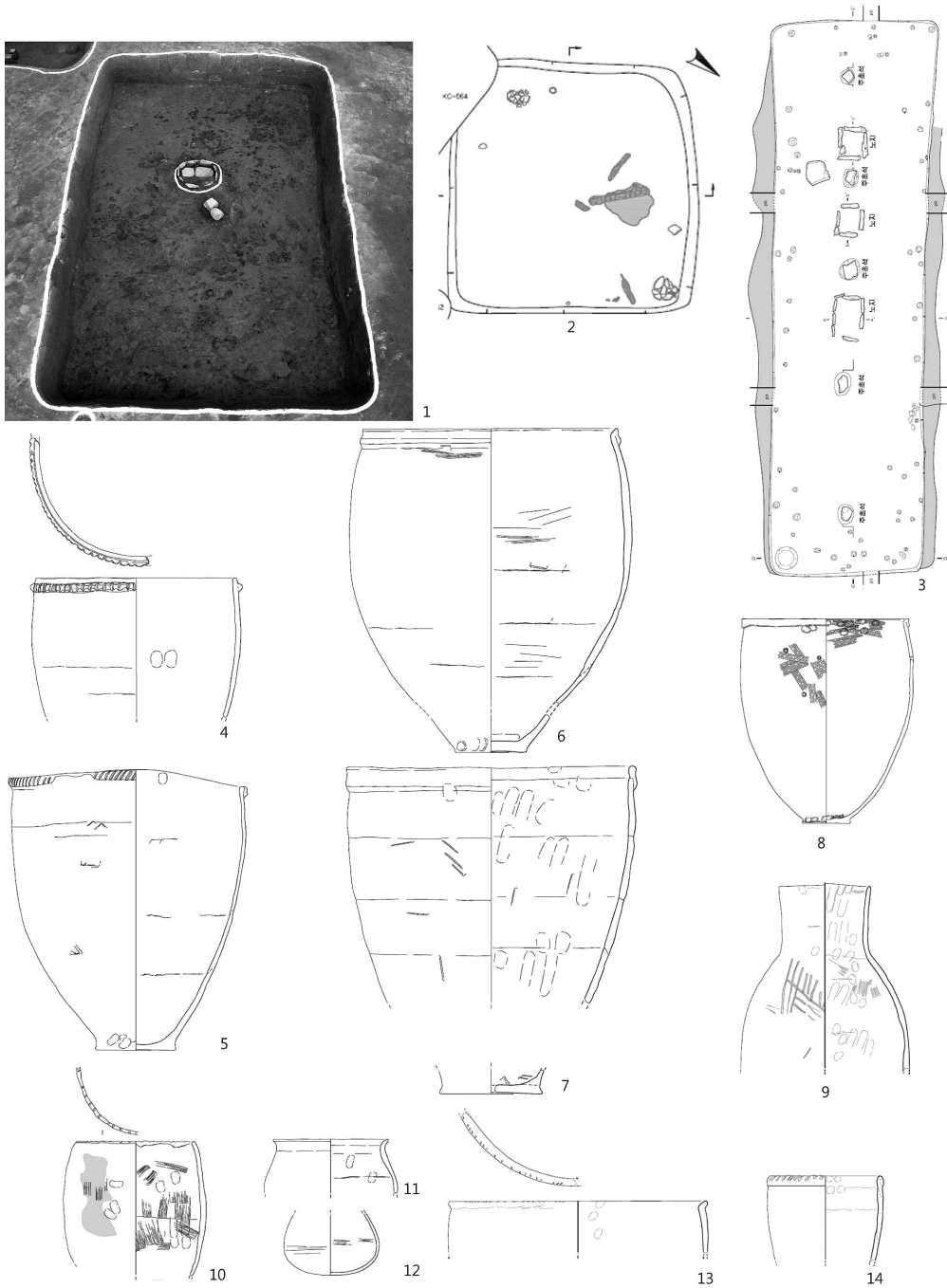
1•13. 송산리1호 2•4~6. 대평리C16호 3•15. 대평리B4호 7•12. 대평리C10호 8•9•14. 원신흥동2-1호 10. 대평리B19호 11. 대평리B16호

그림 9. 금강유역 미사리유형 1단계



1·5·9. 대평리A3호 2·6·7·10. 대평리B13호 3·8·12. 대평리B2호 4. 대평리A1호 11. 대평리A12호 13. 대평리C24호 14. 대평리A4호

그림 10. 금강유역 미사리유형 2단계



1. 1•4. 대평리C6호 2. 대평리B8호 3. 원신흥동2-2호 5•6. 대평리C3호 7. 대평리C2호 8. 대평리B8호 9•13 대평리A5호  
10~12 대평리C8호 14. 원신흥동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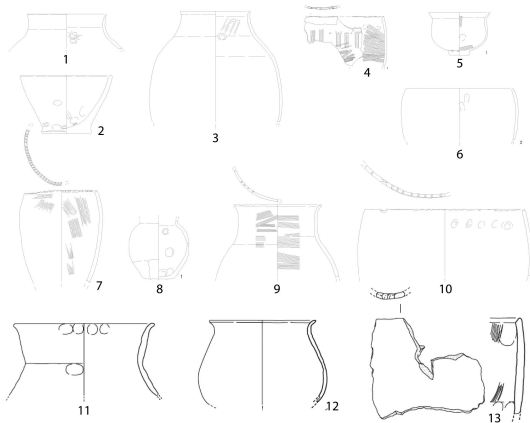
그림 11. 금강유역 미사리유형 3단계

## 2. 가락동유형의 상한과 하한

가락동유형의 금강유역 제일성에 대한 것은 이론이 없으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가 확보되고 있다. 종래 금강유역의 이 가락동유형에 대한 여러 검토에서는 대체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왔다.(이형원 2009, 공민규 2012) 이러한 3단계의 구분은 둔산식주거지의 형식과 연동하여 둔산식-용암 I 식-용암 II의 전개 과정이 설명되었으며 이러한 이해는 전체적인 틀에서 변동이 없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연기 송원리와 송담리유적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용암 II 식에 후행하는 주거형(송담식)을 설정한 바 있다.(공민규 2012) 이것은 전단계에 비해 소형화된 장방형계의 주거지에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된 특징을 근거로 하며, 이중구연계토기의 부재와 송원리유적에서의 중복관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장방형주거지와 무시설식노지의 조합에 대해 ‘비가락동계’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으나(공민규 2011) 이것은 병천천을 따라 서쪽에서 유입된 역삼동유형(또는 혼암리유형)계통에 해당되는 것이고 가락동유형계에서는 별도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울리유적이나 봉명동유적의 자료와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금강유역권에서 전기의 요소를 가진 마지막 단계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거지의 조사에는 송원리나 송담리유적 등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최근의 연기 연기리유적, 대전 용계동, 상대동, 원신흥동, 덜레기유적에서도 동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거지가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위석식노지, 초석의 소멸 자체가 전기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라고 판단했던 이해의 큰 틀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러한 자료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보고된 대전 관저동유적에서는 일반적인 가락동유형의 주거구조와는 다른 주거지가 보고되었다. 관저동 9호주거지는 위석식노지 2개가 설치된 것으로서 용암 I 식 또는 용암 II 식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노지의 설치가 기존의 둔산식주거지와는 다르게 양쪽 단벽



1~3. 송담리 28-20호 4. 송담리 28-30호 5.6. 송담리 29(3)-1호 7. 송원리 26호 8. 송담리 28-27호  
9. 송담리 29(3)-2호 10. 송담리 29(3)7호 11. 관저동 20호 12.13. 용계동 5호

그림 12. 송담식주거지 관련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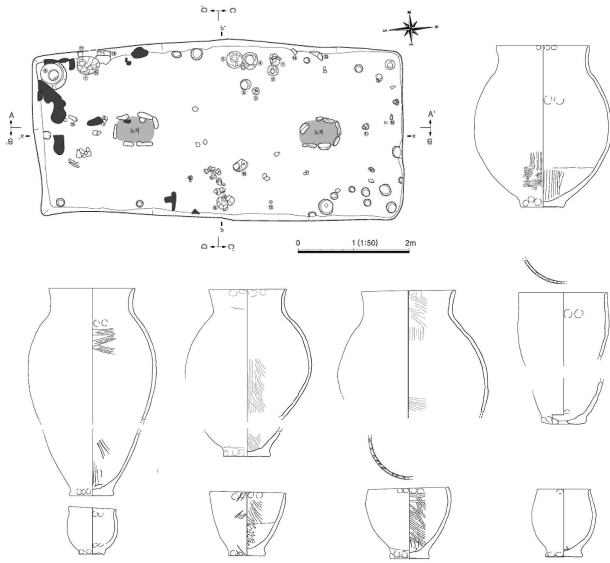


그림 13. 관저동유적 9호 주거지와 출토유물

쪽으로 치우쳐있고 가운데에 넓은 공간을 둔 것이다. 주거지 내부의 공간 구조상 둔산식주거지는 1개의 노지는 복수의 노지는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는 것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구순각목심 발형토기나 경부 또는 구연이 약간 외반된 외반구연호(옹)이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관저동유적에서 조사된 23기의

주거지 중 송국리식주거지를 제외한 21기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된 예는 전무하여 단지 용암Ⅱ식으로 추정되는 22호 주거지에서 횡침선위에 단사선문이 시문된 토기가 여타 유적과 비교 가능한 자료일뿐이다. 그런데 대전지역을 관통하는 갑천에서 분기된 유성천과 대전천유역에는 이와 같은 늦은 단계의 양상들이 비교적 다수 확인되는데 가오동이나 상대동, 원신홍동 달레기, 용계동유적 등이며 관저동유적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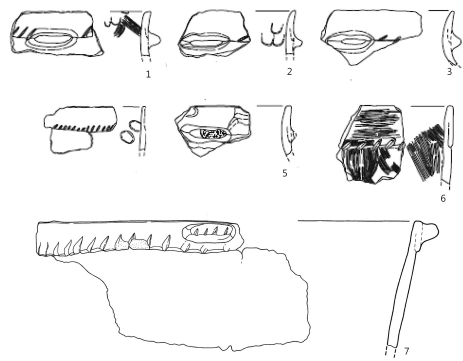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락동유형에서의 빠른 단계에 대한 문제이다. 청원 대울리유적이나 청주 봉명동 A-1·3·14호 주거지, 대전 용산동 45호 등은 가락동유형의 정형에서 다소 벗어난 자료들로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안재호 2009, 이형원 2009, 공민규 2011) 그런데 금강유역권에서 가장 빠른 단계로 이해되고 있는 대울리유적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중 일부는 금강유역의 미사리계 이중구연과 유사하고, 봉명동 A3호 출토품도 같은 형식이다. 또한 봉명동 A1호의 돌대문이나 A14호의 절상돌대문과 이중구연거치문의 자료 역시 이 지역에서 비교적 빠른 단계에 해당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런데 최근 보고된 연기 보통리의 일부 자료 중에서 이중구연에 절상돌대가 부가된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것은 각목의 유무에 따라 구분가능하지만 대전 용산동 45호 출토품에 대비될 수 있다. 연기 보통리유적의 절상돌대+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된 3호주거지는 둔산식에 해당되어 가락동유형의 빠른 단계이며 절상돌대문이 출토된 5호주거지는 용암Ⅰ식으로 추정된다. 다음의 그림 12는 이와 관계된 자료이다. 여기서 보이는 절상돌대문은 대부분 짧은 형태로 금산 수

당리유적 6호 출토품과는 다르다. 어쨌든 보통리유적이나 용산동유적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가락동유형의 빠른 단계에는 절상돌대문이 포함될 수 있음이 밝혀졌으며 대울리나 봉명동의 자료 등과 함께 구릉지 자료의 상한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락동유형의 토기자료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토기의 문양속성 중 비교적 빠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복합문에서 이중구연거치문이며, 단독문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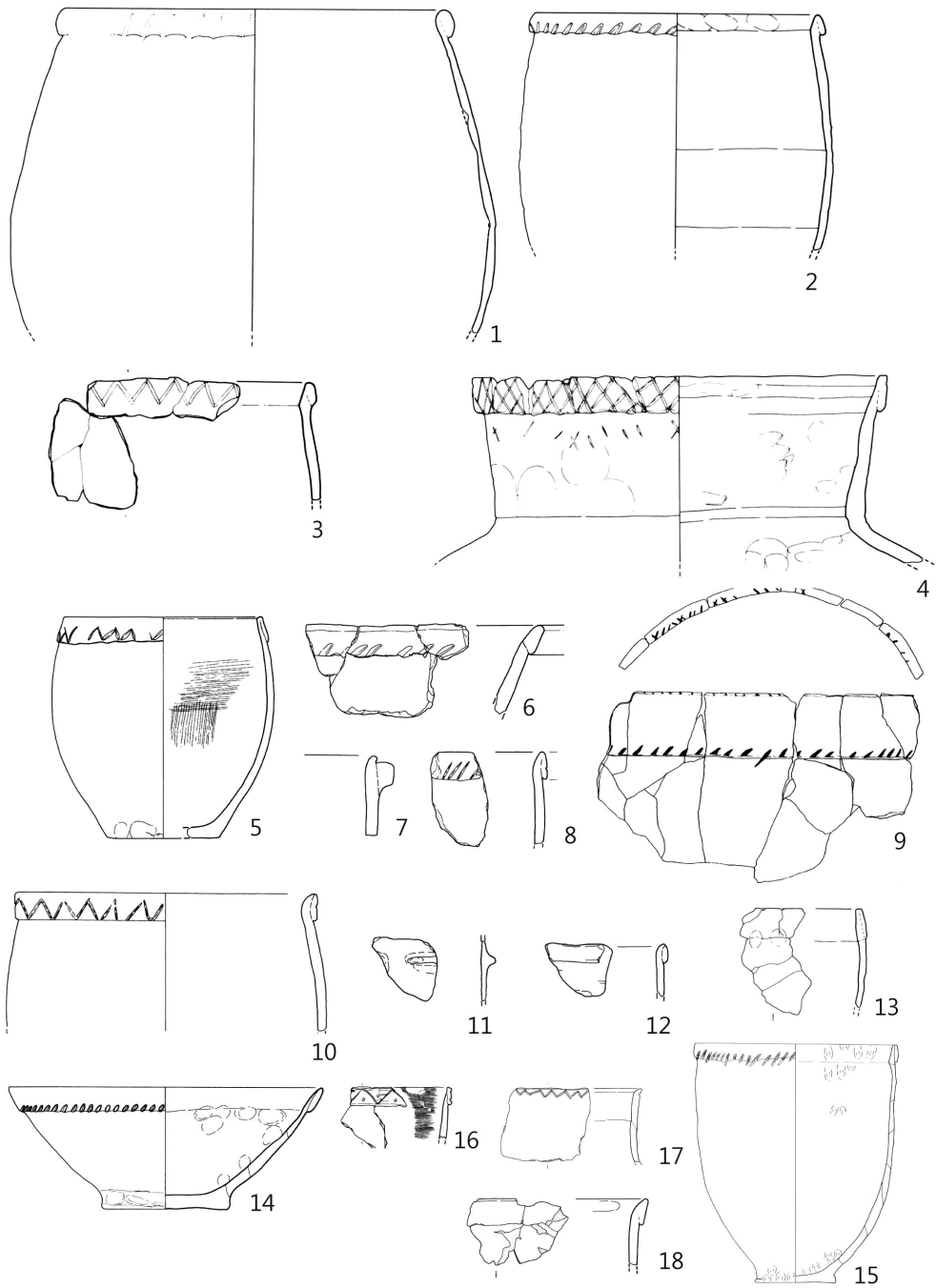
이중구연, 절상돌대문과 돌대문의 마지막 단계로 이해되었던 구순각목b이다. 또한 가락동유형의 문양속성 중 늦은 것으로 단사선문, 구순각목a을 들 수 있다. 이중구연거치문토기는 학소리 2-1호주거지를 비롯하여 학소리 1-1호주거지, 궁동 13호주거지, 대울리 2호주거지, 봉명동 A14호주거지의 출토예가 알려져 있고, 거치문토기는 용산동 4-1·2호주거지, 송원리 KC032호주거지에서 출토된다. 절상돌대문은 봉명동 A1·14호, 수당리C6호, 연기 보통리 3·5호, 용산동 4·5호 등이 있다. 한편 유상돌대의 경우 빠른 단계의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부 확인되는데 용산동 4·4호 출토품의 경우 절상돌대에 가까운 편이며, 그 외에는 주로 용암 I 식 단계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구순각목b가 확인되는 예는 내곡동주거지와 용산동 C2호주거지 출토품이 있으며, 송원리와 송담리유적에서는 다수의 출토예가 알려져 있다. 이중구연 단독문은 내곡동, 대울리 2호, 강서동 1·3호, 용산동 4·2호, 관평동II6호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이 금강유역의 가락동유형 또는 구릉지에 위치한 유적의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토기 중 비교적 빠른 속성을 갖는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비교적 많은 속성이 중복되거나 그 자체의 속성이 빠른 자료를 통해 가락동유형의 1단계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표 11~13은 가락동유형을 포함한 구릉지 자료에 대한 기왕의 인식과 새로운 단계설정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즉 미호천유역권, 금강본류권, 갑천유역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호천유역의 자료가 비교적 선행하는 양상을 잘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금강본류권의 보통리유적이나 송원리·송담리유적의 일부 자료도 빠른 단계의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되나 송원리·송담리의 경우 유적의 규모와 취락자체의 존속기간이 긴 점을 감안한다면 취락내 또는 집단 내에서 타지역의 취락집단과는 문양속성의 존속기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4. 연기 보통리 3호 5.6. 연기 보통리 5호 7. 대전 용산동 4-5호

그림 14. 가락동유형의 돌대문토기



1~4. 대울리 5,6. 학소리 7,8,10~12. 봉명동 9. 내곡동 13. 강서동3호 14,15. 용산동C1호 16. 궁동 13호  
17. 용산동4-1호 18. 용산동4-2호

그림 15. 가락동유형 1단계 관련 자료

표 11. 미호천유역 가락동유형의 단계

| 유구명       | 구분<br>문양<br>문양번호<br>주거형 | 복합문             |                 |              |               |              |                    |                    | 단독문             |         |      |      |        |       |      |
|-----------|-------------------------|-----------------|-----------------|--------------|---------------|--------------|--------------------|--------------------|-----------------|---------|------|------|--------|-------|------|
|           |                         | 이중구연 A + 단사선문 a | 이중구연 A + 단사선문 b | 이중구연 A + 거치문 | 이중구연 A + 사격자문 | 이중구연 A + 점열문 | 이중구연 A + 단사 a + 각목 | 이중구연 A + 단사 b + 각목 | 이중구연 B + 단사선문 a | 단사 + 각목 | 이중구연 | 단사선문 | 구순각목 a | 절상돌대문 | 유상돌대 |
|           |                         | 1               | 2               | 3            | 4             | 5            | 8                  | 9                  | 11              | 18      | 19   | 20   | 21     | 26    | 27   |
| DYR2      |                         |                 |                 | ●            |               | ●            |                    |                    |                 |         |      |      |        |       |      |
| BMD(A)14  | 미상(장방형)                 |                 |                 | ●            |               |              |                    |                    |                 |         | ●    |      |        | ●     |      |
| HSR(II)1  | 둔산b                     | ●               |                 | ●            |               |              |                    |                    |                 |         |      |      |        |       |      |
| DYR7      |                         | ●               |                 |              | ●             |              |                    |                    |                 |         |      |      |        |       |      |
| DYR1      |                         | ●               | ●               |              |               |              | ●                  |                    |                 |         |      |      |        |       |      |
| DYR5      |                         | ●               | ●               |              |               |              |                    |                    |                 |         |      |      |        |       |      |
| DYR4      |                         |                 | ●               |              |               |              |                    |                    |                 |         |      |      |        |       |      |
| DYR환호     |                         | ●               | ●               |              |               |              |                    |                    |                 |         |      |      |        |       |      |
| MSR1      |                         |                 | ●               |              |               |              |                    |                    | ●               |         |      |      |        |       |      |
| NGD       | 둔산b                     | ●               |                 |              |               |              | ●                  | ●                  |                 |         |      |      |        |       |      |
| GSD2      | 둔산a                     |                 | ●               |              |               |              |                    |                    |                 |         |      |      |        |       |      |
| GSD3      | 둔산b                     |                 |                 |              |               |              |                    |                    |                 |         | ●    |      |        |       |      |
| YAD(I)1   | 둔산a                     | ●               |                 |              |               |              |                    |                    |                 |         |      |      |        |       |      |
| YAD(II)7  | 둔산b                     | ●               |                 |              |               |              |                    |                    |                 |         |      |      |        |       | ●    |
| BHD II 5  | 둔산a                     | ●               |                 |              |               |              |                    |                    |                 |         |      | ●    |        |       | ●    |
| BHD II 8  | 둔산b?                    | ●               |                 |              |               |              |                    |                    |                 |         |      |      |        |       |      |
| BMD(A)1   | 미상(장방형)                 |                 |                 |              |               |              |                    |                    |                 |         |      |      |        |       | ●    |
| GSD1      | 용암 I ?노지무               | ●               |                 |              |               |              |                    |                    |                 |         | ●    |      |        |       |      |
| YAD(II)1  | 용암 I a                  | ●               |                 |              |               |              |                    |                    |                 |         |      |      |        |       |      |
| HSR(I)1   | 용암 I a                  | ●               |                 |              |               |              |                    |                    |                 |         |      |      |        |       |      |
| SYR4      | 용암 I a                  | ●               |                 |              |               |              |                    |                    |                 |         |      |      | ●      |       |      |
| BHD II 7  | 용암 I ?                  | ●               |                 |              |               |              |                    |                    |                 |         |      |      |        |       |      |
| BHD5      | 미상(장방형)                 |                 |                 |              |               |              |                    |                    | ●               |         |      |      |        |       |      |
| BHD II 6  | 용암 I ?                  |                 |                 |              |               |              |                    |                    |                 |         |      |      |        | ●     |      |
| YAD(II)8  | 용암 II a                 |                 |                 |              |               |              |                    |                    |                 | ●       |      |      |        | ●     |      |
| YAD(II)9  | 미상(위석식)                 |                 |                 |              |               |              |                    |                    |                 |         |      |      |        | ●     |      |
| YAD(II)11 | 미상(소형방형)                |                 |                 |              |               |              |                    |                    |                 |         | ●    |      |        |       |      |

DYR : 대울리, BMD : 봉명동, MSR : 마산리, NGD : 내곡동, GSD : 강서동  
 YAD : 용암동, BHD : 비하동, HSR : 학소리, SYR : 사양리, BTR : 보통리  
 SWR : 송원리, SDR : 송담리, JCR : 제천리, YHR : 용호리, YSD : 용산동  
 DSD : 둔산동, GPD : 관평동, SDD : 상대동, KGD : 관저동, GD : 궁동  
 YGD : 용계동, DGR : 두계리, SDR : 수당리, YSHD : 원신흥동





표 14. 가락동유형 문양의 유행과 존속기간

| 단계               | 1  | 2       | 3    | 4     | 5  |
|------------------|----|---------|------|-------|----|
| 주거형식             | 둔산 | 둔산,용암 I | 용암 I | 용암 II | 송담 |
| 이중구연             |    |         |      |       |    |
| 철상돌대문            |    |         |      |       |    |
| 유상돌대문            |    |         |      |       |    |
| 짐열문              |    |         |      |       |    |
| 구순각목a            |    |         |      |       |    |
| 단사선문             |    |         |      |       |    |
| 거치문              |    |         |      |       |    |
| 이중구연A+거치문        |    |         |      |       |    |
| 이중구연A+사격자문       |    |         |      |       |    |
| 이중구연A+짐열문        |    |         |      |       |    |
| 이중구연A+단사선문a      |    |         |      |       |    |
| 이중구연A+단사선문b      |    |         |      |       |    |
| 이중구연A+단사선문a+구순각목 |    |         |      |       |    |
| 이중구연A+단사선문a+철상돌대 |    |         |      |       |    |
| 이중구연B+구순각목b      |    |         |      |       |    |
| 이중구연A+단사선문b+구순각목 |    |         |      |       |    |
| 이중구연B+단사선문b      |    |         |      |       |    |
| 이중구연B+단사선문b+구순각목 |    |         |      |       |    |
| 공렬문+구순각목         |    |         |      |       |    |
| 단사선문+구순각목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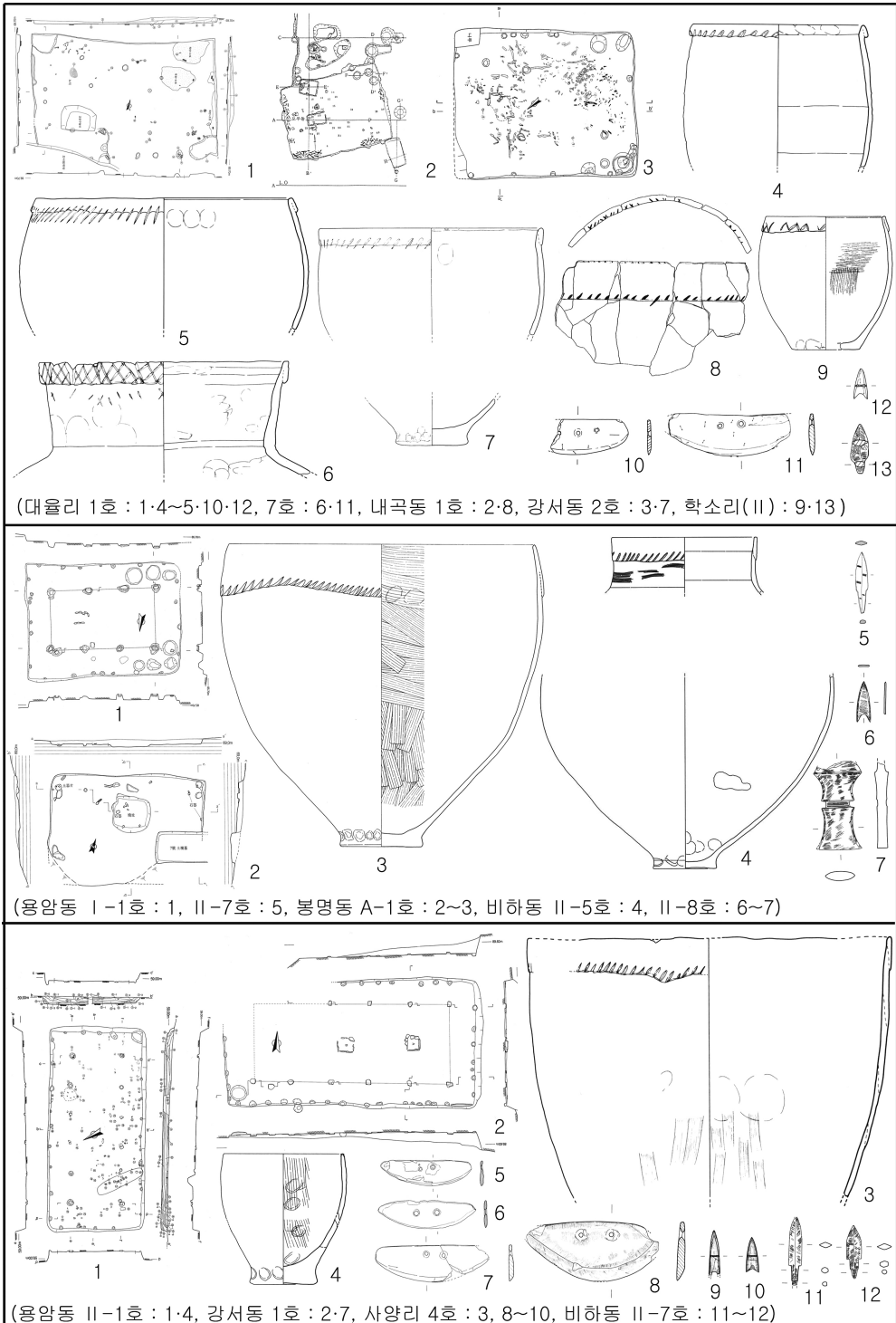


그림 16. 가락동유형의 단계1(上:미호천 1, 中:미호천 2, 下:미호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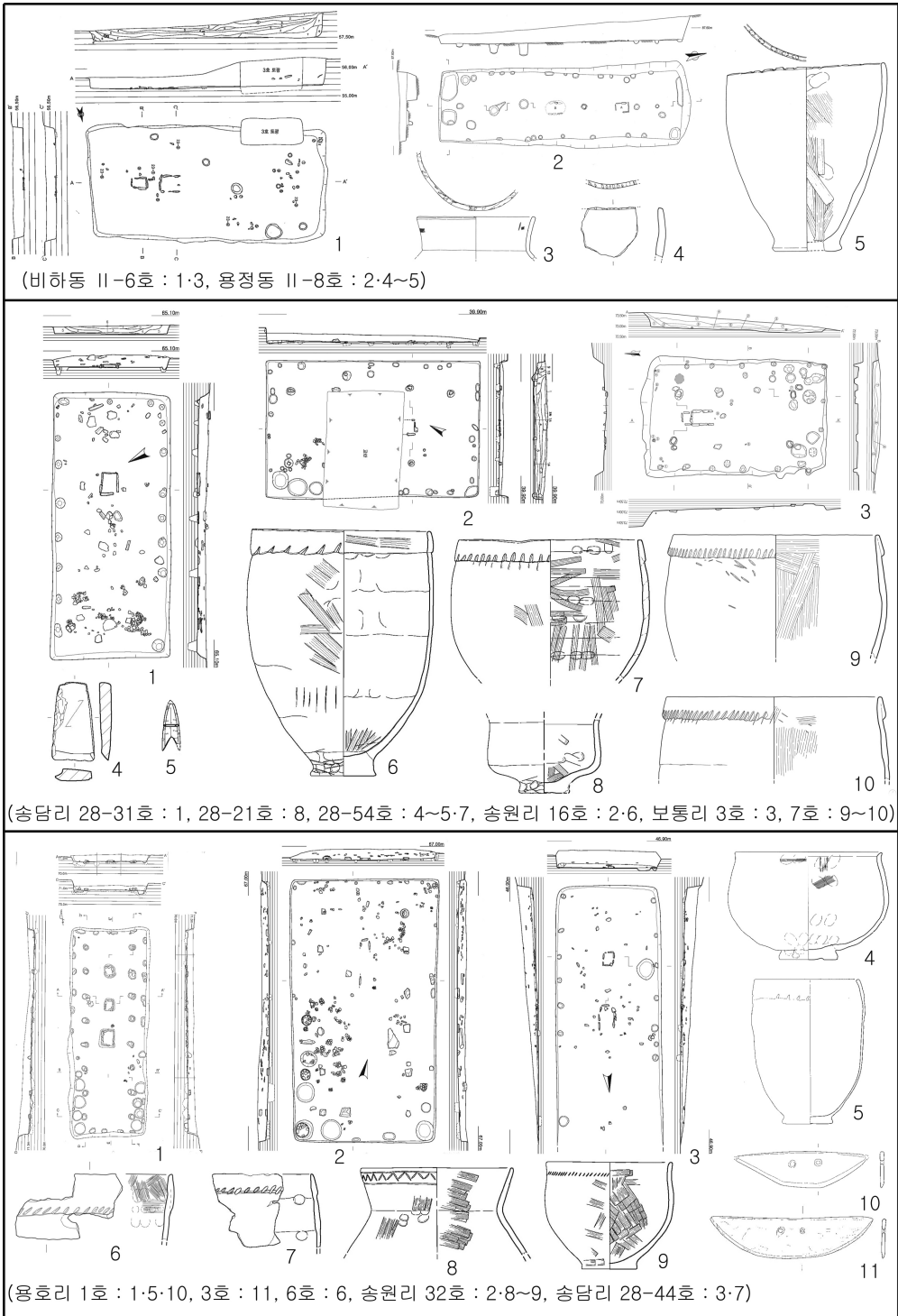


그림 17. 가락동유형의 단계2(上:미호천 4, 中:금강 1·2, 下:금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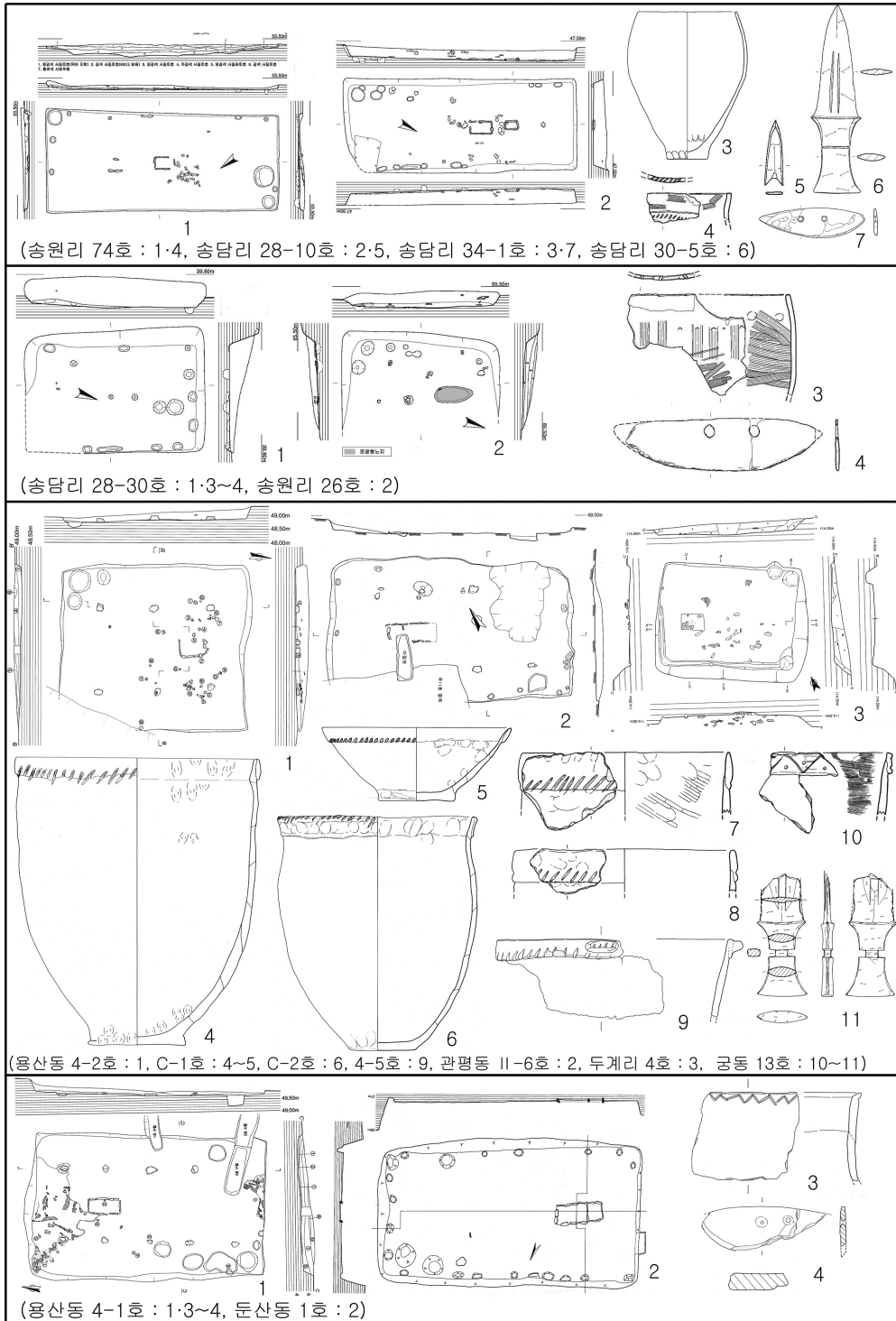


그림 18. 가락동유형의 단계3(上上:금강 4, 上:금강 5, 中:갑천 1, 下:갑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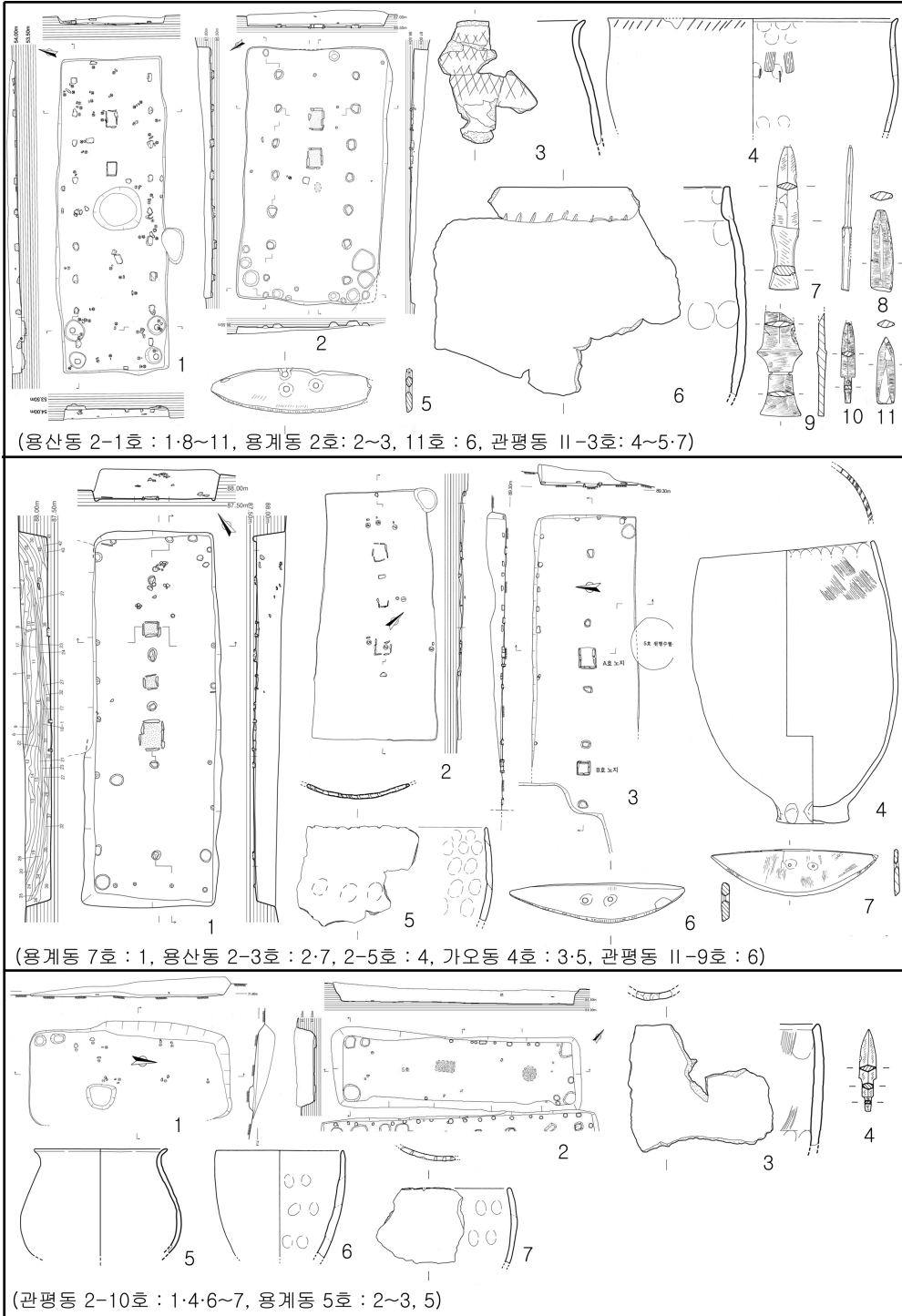


그림 19. 가락동유형의 단계4(上:갑천 3, 中:갑천 4, 下:갑천5)

### III.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맷음말을 대신하여

중부 이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에 나타나는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은 기본적으로 취락 또는 유적의 입지에서 구릉과 충적지라는 차이가 있으나 위석식노지와 초석을 갖춘 주거구조, 이중구연계토기의 존재 등에 있어 공통의 분모가 여타 유형에 비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청동기시대 초기=미사리유형이라는 등식은 이제 정설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초기의 문화상 특히 토기에 대한 각론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미사리유형 또는 각목돌대문토기의 위상과는 관계없으며, 가락동유형 또는 여타 유형의 병존 여부에 집중된다. 이미 많은 연구(배진성 2007, 김현식 2008, 김병섭 2009)에서 가락동식토기 즉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를 초기에 위치시키고 있으며, 필자도 이에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초기 또는 전기의 구분 대신에 금강유역권에서의 미사리유형의 단계와 가락동유형의 단계를 각각 정리한 앞장에서의 검토를 토대로 간략하게 양자의 병행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 가락동유형              | 미사리유형                |
|------|--------------------|----------------------|
| 취락입지 | 구릉                 | 충적지                  |
| 주거지  | 둔산식(장방형, 토광위석식+초석) | 미사리식(정방형, 석상위석식+무주공) |
| 토기   |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토기       |
| 석기   |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촉      | 편평석부, 편평삼각촉          |

금강유역의 미사리유형은 3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각목돌대문토기, 미사리계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등이 중심을 이루며, 특히 단독문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형태나 노지의 형식은 다양한 편이지만 정방형과 방형 주거지가 주를 이루고, 노지는 다양한 편이다. 2단계는 각목돌대문과 이중구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등 복합문토기가 중심인 시기이다. 주거지의 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이 주를 이루며, 노지는 무시설식노지가 비교적 많이 확인된다. 3단계는 1·2단계의 문양요소가 모두 확인되는 가운데, 구순각목a나 이중구연+구순각목b가 중심을 이루며, 제한적이지만 절상돌대문토기도 이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락동유형은 5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이중구연거치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거치문토기,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등을 중심으로 한 둔산식주거지의 단계

이며 대울리와 봉명동유적의 일부 자료가 포함된다. 2단계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둔산식, 용암 I 식주거지로서 유상돌대도 동단계에 집중된다. 3단계는 용암 I 식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지속되며, 4단계에 이르면 이중구연계토기는 거의 소멸하며 주거지는 용암 II 식주거지가 중심이다. 5단계는 이른바 송담식 주거지가 중심을 이루는데 기와의 가락동유형의 중심 요소는 거의 사라지며 토기 역시 구순각목이 성행한다. 한편 과거 가락동유형에 외부 요소의 유입이라는 개념하에 설정했던 하당식은 용암 I 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금강 본류나 갑천유역권에서 최근 증가하는 동형식의 자료는 주로 가락동유형의 외곽에서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던 필자의 견해가 수정되어야 함을 나타내준다.

그렇다면 양자의 병행관계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우선 미사리유형의 1단계와 가락동유형의 1단계에서 공통되는 점은 이중구연거치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이다. 이중구연토기는 미사리계의 이중구연과 가락동계의 이중구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모티프는 같으므로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문제는 절상돌대문의 존재이다. 미사리유형의 절상돌대문은 재고의 여지는 있으나 3단계에 해당되고 가락동유형의 절상돌대문은 1단계에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난다. 그런데 미사리계의 절상돌대문은 각목돌대문과 같이 비교적 점토띠의 폭이 얇은 것인데 반해 가락동계 절상돌대문은 작고 투박하며, 이중구연과 직접 결합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정원철 2012)를 참고한다면 절상돌대보다 유상돌대에 가까운 것으로서 양 유형의 돌대문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미사리유형 3단계는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문 등 미사리유형 고유의 요소가 계속 보이고 새롭게 구순각목a와 이중구연구순각목b가 나타나는데, 가락동유형의 3단계 역시도 고유의 요소인 이중구연단사선문이 지속되고 구순각목문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통해 양유형의 3단계도 어느 정도 비슷한 시간대를 갖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양유형의 1~3단계는 세부적인 존속기간과 상·하한에서 일부 차이점은 있을지라도 적어도 금강유역내에서는 동시기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부 미비한 점은 향후 주변지역과의 검토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 공민규, 2011, 「금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검토」『한국청동기학보』8, 한국청동기학회.
- 孔敏奎, 2012, 「錦江中流域青銅器時代前期集落の成長」『日韓集落の研究』最終報告書, 日韓集落研究會.
- 김병섭, 2009, 「남한지역 조·전기 무문토기 편년 및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한국청동기학보』4, 한국청동기학회.
- 김현식, 2008,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문화사적 의미」『考古廣場』2, 釜山考古學研究會.
- 배진성, 2007a,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_\_\_\_\_, 2007b, 「전기무문토기 속의 횡대구획문토기」『考古廣場』創刊號, 釜山考古學研究會.
- 안재호, 2007, 「編年을 위한 屬性配列法」『考古廣場』創刊號, 釜山考古學研究會.
- \_\_\_\_\_, 2009,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과제」『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柳善英, 2012, 『금호강유역 전기 무문토기 편년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원, 2007,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상한과 하한」『한국청동기학보』창간호, 한국청동기학회.
- \_\_\_\_\_, 2009, 『한국 청동기시대의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원철, 2012, 「중부지역 돌대문토기의 편년 연구」『한국청동기학보』11, 한국청동기학회.
- 천선행,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한국고고학보』57, 한국고고학회.
- 현대환, 2112, 「금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전기토기의 이해」『남한지역 초기 무문토기의 지역 양상』, 한국청동기학회 2012년 토기분과 워크샵.